

가족 동정 및 공지 사항

- 성가대 오후 부활 성가 연습에 대하여
오후 성가 연습 시간이 부족하므로 빠짐없이 참석하여 은혜의 부활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홍진 테레사 자매님 모친의 88세 (미수)축하식에 참석차 2월 14일-27일까지의 여정으로 한국으로 떠나십니다. 모친의 생신을 축하드리며, 테레사 자매님의 즐겁고 기쁜 여행길이 되도록 기도드립니다.
- 최 광섭 요한 형제님과 최상진 엘리사벳 자매님은 2/3일부터 2/14일까지 짧은 여정으로 여행중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즐겁고 안전한 여행이 되시도록 기도중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성숙 리따 자매님 1/27-2/15일까지 여정으로 한국을 방문중입니다.,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 지난 일요일 성가연습시간에 2011년 사순 & 부활시기에 부를 성가를 모은 CD를 만들어 배포하였습니다. 이 메일에 그 곡 리스트를 첨부하여 보내드립니다. 곡이 많은 관계로 미사곡, 알렐루야, 만민들아 기뻐하라만 파트연습곡을 넣었고, 나머지 곡들은 실제 합창만 넣었습니다. (총 20 Track)
- 악보자료와 거의 모든 곡의 파트 연습은 아래의 성당웹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sjkoreancatholic.org/2011_easter
- CD에 배포된 "우리의 어두운 눈이 그를" 다시 올렸습니다.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http://www.sjkoreancatholic.org/node/11907>
- 부족한 연습시간을 CD를 통하여 각자가 연습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신 다니엘 형제님께 감사드립니다.
최 일해 다니엘 제공

[마태 5,20-22나.27-28.33-34나.37]

20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의 의로움이 율법 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의 의로움을 능가하지 않으면, 결코 하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21 '살인해서는 안 된다. 살인한 자는 재판에 넘겨진다.'고 옛사람들에게 이르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22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자기 형제에게 성을 내는 자는 누구나 재판에 넘겨질 것이다.

27 '간음해서는 안 된다.'고 이르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28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바라보는 자는 누구나 이미 마음으로 그 여자와 간음한 것이다

34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아예 맹세하지 마라.

37 너희는 말할 때에 '예.' 할 것은 '예.' 하고,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라고만 하여라. 그 이상의 것은 악에서 나오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먼저 서로 한결같이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많은 죄를 덮어 줍니다. (베드로1서 4,8)”

금주의명언

“고통이 오래 지속 된다 해도 슬퍼하지 마라,
하느님은 모든 것을 헤아리고 계신다.”



어떤 사람이 상기된 얼굴로 불평을 늘어놓기 시작하였습니다.

“당신 친구가 어떤 일을 했는지 알고나 있소?”

이에 상대방은 온화한 얼굴로 막습니다.

“잠깐, 당신이 말하려는 것을 세 가지 체로 걸러 보았소?”

그가 되묻습니다. “세 가지 체라니요?”

“그렇소. 세 가지 체요.

첫 번째는 진실이라는 체요.

당신의 이야기가 진실이라는 증거가 있소?”

“아니오. 나도 전해 들었을 뿐이오.”

“그러면 두 번째 체로 걸러 봅시다. 선(善)이라는 체요. 당신의 이야기가 진실은 아니더라도 선한 것이라고 판단되요?” 불평하던 사람은 머뭇거리다 답합니다.

“아니오. 오히려 그 반대라 해야 될 것 같소.”

“그럼 마지막 체로 걸러 봅시다.

자신에게 꼭 필요한 이야기요?”

“글쎄요. 꼭 필요한 것이라 할 수는 없지요.”

“그렇다면 잊어버립시다.

그런 일 때문에 마음고생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남의 말을 많이 하면 우울한 하루가 됩니다.

그러한 날이 쌓이면 삶은 즐겁지 못합니다.

행복한 말을 주고받아야 행복한 인생이 됩니다.

비판과 불만만을 제시하는 지도자가 너무 많습니다.

직장에도 있고, 가정에도 있고,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행복을 알려 주고 기쁜 삶으로 인도하는 지도자가 그림습니다.

**“나는 쓸데없이 공연히 남의 험담이나
나와 상관도 없는 일에 끼어들어
용분한 적은 없는지?..”**

미사의 구성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어주는 내 몸이다. 나를 기뻐하여 이 예식을 행하여라"(루가 22,19) 하신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당신의 몸과 피를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최후만찬을 미사 전례 안에서 재현한다. 그러므로 미사는 교회가 하느님께 바치는 흠숭의 정점이며, 가장 완전한 찬미와 감사의 제사이다. 이보다 더 큰 기도, 이보다 더 큰 전례는 없다.

시작 예식

말씀 전례 앞에 있는 입당·인사·참회·자비송·대영광송·본기도 등은 시작의 성격을 지니고 미사의 안내와 준비 역할을 한다. 이 예식의 목적은 한자리에 모인 신자들이 일치를 이루며, 하느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듣고, 합당하게 성찬 전례를 거행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데 있다.

말씀 전례

말씀 전례의 주요 부분은 성서의 독서들과 그 사이에 외우는 시구(詩句)로 되어 있다. 독서는 하느님 말씀을 생생하게 경청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독서를 통해 하느님께서서는 당신 백성에게 말씀하고, 구원의 신비를 밝혀주며, 영신의 양식을 제공하신다. 사제는 신자들에게 하느님의 심오한 진리를 강론을 통해 설명해 주고 신자들은 신앙고백으로 그 말씀에 동의한다. 이렇게 하느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은 신자들은 보편지향기도로써 온 교회의 필요와 전세계의 구원을 위한 기도를 바친다

성찬 전례

그리스도의 최후만찬을 기뻐하고 재현하는 성체 축성과 영성체가 중심을 이루며, 미사의 가장 핵심 부분이고 절정의 순간이라 할 수 있다. 성찬 전례 중에 우리는 하느님의 구원 성업에 대해 감사하며, 성령의 힘으로 이루어진 그리스도의 수난과 죽음, 부활과 승천을 기뻐한다.

마침 예식

성찬에 초대받아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적 일치를 이루고, 미사로써 힘을 얻은 우리는 세상에 나가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구원의 기쁜 소식을 모든 이에게 전하기 위하여 강복을 받고 사도로서 파견된다.

“유머” ㅎㅎㅎ

사오정이 엄마에게 물었다.

"엄마, 아기는 어떻게 생기는거야?"

갑작스런 질문에 당황한 사오정 엄마.

"응..., 하나님께서 주신거란다."

저녁이 되어 사오정 아버지가 집에 들어오자 사오정이 하는 말.

"하느님~, 오셨어요?"

